

홍콩ELS 손실 5천억 넘었다...배상 쟁점은 '적합성 원칙'

올해 손실 7조 예상...당국 "ELS 적합한 투자자인지 판단 형식적" 은행 "매뉴얼 준수...당국 '책임 분담 기준안' 보고 '배상안' 결정"

올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 흐름과 연동된 추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우려대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도 법무법인들과 배상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결국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원/원금 9733억원)에 이른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지난 9일 H지수(5306) 역시 2021년 당시 고점(약 1만2000)의 절반을 밑돌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 2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의 배상안은 금융 당국이 이달 말 전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에 기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통해 ELS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살펴왔는데, 금융원 검사국 뿐 아니라 분쟁조정국 관계자들이 은행 판매 직원, 실제 가입 고객을 상대로 두루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은행권은 주목하고 있다.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 판매 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무위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노후 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파생금융상품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등을 금융사가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예금과 똑같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 유형의 불완전 판매다.

따라서 은행권은 이번에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이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배상)', '최초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무위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 전후로 내놓을 '자율 배상안'과 향후 배상 과정에서 ELS 판매 과정 적합성 위반을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많이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을 고지했고, 매뉴얼에 따라 소액·연령대·직업·가입 경험·손실 감내 수준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져 취합된 점수에 따라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을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은행이 자율 배상안을 먼저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준안을 최대한 참고해서 자율 배상안이 완성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연합뉴스

광주은행 '펀드 판매회사 평가' A등급 '은행권 1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가로, 펀드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27개 펀드 판매회사(은행 11개·증권 15개·보험 1개)의 475개 지점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해 실시했다.

평가는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 ▲적합한 펀드 추천 ▲정확한 펀드 설명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펀드 가입 유도 및 상담 시 부연설명 제공 등 5개 부문에서 24개 평가문항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A등급을 획득해 평가에 참여한 11개 은행 중 1위를 기록했고, 전체 27개 펀드 판매회사 중 7위를 차지하며 펀드 판매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의 고독점 배경에는 위험도가 큰 투자상품 판매 선제적 제한과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 상품 배제가 있다. 대표 사례로는 철저한 위험분석을 통해 지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상품에 대한 선제적인 판매 제한이 꼽힌다.



김홍화 광주은행 WM고객부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펀드 완전 판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자체 미스터리쇼퍼를 꾸준히 시행하는 등 고객

의 자산 보호 및 올바른 투자권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은행 거래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



광주 초대형 공원 속 파크 라이프 북구 '위파크일곡공원' 본격 분양

라인건설·호반건설 공급
84㎡~138㎡ 1004가구
전나무 숲·캠핑장 등 조성
19일 특별·20~21일 1·2순위

지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물놀이가 가능한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선다.

단지 내부는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우수한 전나무 숲이 조성되며 단지 내 산책로는 초대형 공원과 연결된다. 초대형 공원에는 숲속 놀이 공간과 캠핑장도 설치된다.

단지는 일곡지구 생활권으로 반경 1km 내 도로로 일동초·중, 일곡초·중, 일신초·중, 국제고등학교 등 13개 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곡역(가칭)이 약 300m 거리에 들어서 예정이며 서광주IC와 빛고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이 가깝고 동림IC와도 약 10분 거리다. 분양가는 평당(3.3㎡) 1600만원 중반대로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게 분양 관계자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 대표건설사로서 최상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설계와 마감재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는데 이에 더해 조경과 공용공간까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혼수·이사 특별전' 최대 500만원 캐시백

3월말까지 삼성스토어 등서 행사
비스포크 이사·웨딩클럽 연계도

삼성전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먼저 행사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결혼·입주 예정고객(증빙 필요)에게 구매 금액별로 최대 8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삼성카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카드로 가전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을 주는 '웨딩마일리지' 혜택도 있어 카드 이용 금액과 가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웨딩·이사 브랜드가 함께 하는 '비스포크 이사클럽', '비스포크 웨딩클럽'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비스포크 이사클럽은 포장이사, 가구 등 이사 준비에 필요한 대표 브랜드, 비스포크 웨딩클럽은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 신집살림 마련까지 선별된 웨딩 브랜드들을 삼성전자 가전과 함께 한층 더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추가로 행사 기간 내 삼성스토어 또는 삼성닷컴에서 600만원 이상 구매한 결혼·이사 예정 고객에게 상품권(5만원)을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 모델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시몬스 베개를 증정하며, 삼성닷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쿼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케이테크-KT 전남전북광역본부 '온라인 교육' 협약

'KHUB LMS' 활성화 추진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지난 8일 LMS(학습관리시스템) 전문기업인 ㈜케이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HUB LMS'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대학·공공기관 등 교육분야 KHUB LMS 솔루션 사업기회 발굴 ▲KHUB의 KT Cloud마켓플레이스 등록을 통한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KHUB ver.2.0 LMS 구축 및 모바일 앱 ver.2.0 구축 ▲AI 기반 교육 서비스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양재동 ㈜케이테크 대표는 "KHUB는 강좌 그룹마다 각각 다른 메뉴와 기능들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소셜 기반의 포털형 LMS로 최신 온라인 교육 트렌드에 가장 부합되는 솔루션이다"며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moodle 기반 LMS와 달리 정규 강좌뿐 아니라 단기 교육 과정 학위제인 마이크로 디그리 등의 비교과 교육, PBL 등의 산학연계 교육, 취업포털, 진로설계 멘토링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빈 기자 lyb54@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9.64(+29.32)
↑ 코스닥	845.15(+18.57)
↑ 금리(국고채 3년)	3.353(+0.048)
↓ 환율(USD)	1328.10(-0.10)

롯데백화점 광주점 발렌타인데이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3일 발렌타인 데이(2월 14일)를 맞아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먼저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는 세계 각국의 초콜릿 제품의 품목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2층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커플링 구매시 10% 할인 혜택과 무상 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커플이 함께 방문 구매시 러닝 상품을 최대 15%, 싱글링 및 우정링 구매시 최대 19% 할인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